



효자2동 지사협 등, 아쿠아 주주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주민센터(동장 박정향)와 효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옥자)는 아쿠아 주주(대표 이래진)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매출액의 일부(월 3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체계로, 기부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적립 되어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다.

착한가게로 선정된 아쿠아 주주 이래진 대표는 “좋은 일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물품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옥자 위원장은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나눔에 동참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후원된 기부금은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향 효자2동장은 “후원에 동참해 주신 이래진 대표께 감사드립니다”며 “나눔의 물결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북전주농협, 북전주농협 조합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북전주농협은 지난 5일 전주시 은고을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북전주농협 조합장배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조합원과 준조합원 280여 명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 속에서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가을 햇살 아래 파크골프를 즐기며 심신을 단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을 한층 강화했다.

대회는 조합원부와 준조합원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경기 종료 후에는 각 부문 우승자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이 전달됐다. 특히 고령 조합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두드러져, 건강 증진과 세대 간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 있는 행사로 평가받았다.

이우광 조합장은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함께 어우러져 웃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조합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체육·문화 행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전은장학재단, 청소년에 손원평 작가 초청 특강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의 후원으로 전주전일고등학교와 전주여자고등학교에서 2025 JB 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청소년들이 문학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성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배우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 스스로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강연에는 ‘아몬드’, ‘서른의 반격’ 등으로 인간 내면과 사회를 섬세하게 그려낸 손원평 작가가 초청돼 관계의 숨겨진 삶과 삶을 이어주는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손 작가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좋지만 나를 알아먹는 감정은 금지”라며 “내 존재가 작게 느껴질 때일수록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하며 자기 존중과 균형 잡힌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인구 구조가 변해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라며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학생은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결국 나를 성장시킨다는 걸 느꼈다”며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2017년부터 매년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JB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지역민들과 나눔정신 실천해 잔잔한 감동’

포스코이앤씨 서부사업단, 전주갑나무골현장 직원 사랑의 연탄나눔행사 펼쳐 귀감

포스코이앤씨 서부사업단(단장 김명준)의 전주갑나무골 재개발아파트현장 직원들이 6일 오전 전주연탄은행을 찾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나눔정신을 실천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 전주 갑나무골 재개발아파트현장(소장 조유준)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나눔행사를 펼치기 위해 전직원과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 3000장을 기부하고 이를 일일이 손으로 나르며 실천했다.

6일 포스코이앤씨 서부사업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 직원과 자원봉사자 30여명은 전주시 완산구 외칠봉 일대를 찾아 사랑의 연탄 3000장을 기부하고 이를 직접 나르는 봉사활동을 펼쳤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고 새로운 활력을 찾아 주기 위한 ‘기쁨은 두배로 슬픔은 반으로’의 나눔정신을 실천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이날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는 지역구 전주시의회 최구민부의장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 서부사업단은 지난 10월 전주시 완산구 천사마을 일원에서 펼쳐진 천사축제에도 참여해 배식과 자리정돈을 비롯한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김명준 단장은 “겨울철에 접어들어 시정에서 이렇게 사랑의 연탄나눔행사를 가져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회사차원에서 기부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유준 현장소장은 “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혼연일체를 이뤄 사랑의 연탄나눔기부 행사를 펼치면서 가슴이 뿌듯했다”며 “직원들도 기부행사를 펼치는 동안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자치도새마을회, ‘민생상생 공동체 결의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가 6일 장수군 장수종합실내체육관에서 ‘2025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지도자 민생상생 공동체 결의대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한 나눔과 봉사 활동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상생과 협력의 새마을정신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최훈식 장수군수, 이상수 도새마을회장을 비롯해 도내 새마을지도자 20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대 의지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회복 실천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기념식에서는 새마을운동 확산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헌신



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도지사 표창 38명, 새마을가념장 2명, 도회장 표창 14명 등 총 5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도내 현장에서 추진된 각종 나눔·봉사 활동을 담은 ‘보람의 현장’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2026년을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행사장에서는 장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열수-민생상생 새마을 장터’도 함께 운영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농가 지원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했다. 또한 전북 전주의 꿈, 울림픽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통해 2026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 염원도 함께 나눴다. /이만호기자·장수=고관호 기자

공은태 전북의용소방대연합회장, 국민포장 수상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공은태 전북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이 6일 열린 제8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은태 연합회장은 1998년 남원 남성의용소방대에 입대해 부대장과 대장을 역임하였으며,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으로 임명되어 의용소방대 발전과 지역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 27년간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생활방역, 화재 및 각종



재난현장 대응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2020년 8월 남원시 기록적 폭우로 인한 섬진강 제방 붕괴 당시 수해복구 활동에 앞장서고, 수해복구기금 3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재난 복구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민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공은태 연합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원을 대신해 큰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소방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체제형 교육생들, 재배한 배추·무 기부

2025년 무주군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들이 6일 무주군자원봉사센터에 김장용 배추 150포기와 무 100개를 기부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교육생들은 “지난 3월 무주군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에 입소한 뒤로 직접 재배한 무와 배추를 이웃들과 나누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며 “귀농의 꿈을 품고 정성으로 키운 만큼 이웃들에게도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을 운영 중으로, 거주시설과 개인 텃밭, 공동경작지 및 학습실을 갖춘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한 다양한 실습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참여한 교육생들은 총 8명으로 3월부터 9개월간 토마토 재배시설과 등 실무 중심의 귀농·귀촌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산내면 지사협, 산내식당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일, 관내 산내식당(서재숙)에 착한 가게 2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산내식당은 30년간 산내면 대정마을에서 요식업으로 주민들에게 단골식당으로 불리는 곳으로 서재숙 대표는 “평소 취약계층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었는데 착한 가게 가입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주변의 기부문화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성근 산내면장은 “후원에 주시는 기부금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특화사업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 계화면-창북지역아동센터 아동, 줍깅 캠페인

부안군 계화면(면장 김화순)은 지난 5일 창북지역아동센터와 함께 계화면 시가지와 창북리 일원에서 줍깅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줍깅’은 ‘줍다’와 ‘조깅’을 합친 신조어로, 쓰레기를 줍는 동시에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을 병행하는 친환경 운동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는 아동들이 건강한 신체활동을 실천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날 캠페인에는 면사무소 직원과 창북지역아동센터 아동 25명이 모여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쓰레기를 줍고, 환경정화활동과 하천하구 등 환경지킴이 캠페인을 펼쳐 주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아울러 창북지역아동센터는 캠페인에 앞서 야생화 운동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 28만원을 계화면에 지정기탁금으로 전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하서면 주민자치위, 군북면 주민자치회 방문

부안군 하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경중)는 6일 충남 옥천군 군북면 주민자치회가 하서면을 방문에 상호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두 지역 주민자치 조직 간의 상호 교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지역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한 하서면은 신재생에너지단지과 새만금환경생태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함께 논의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동충동, 취약계층에 겨울이불 전달

남원시 동충동행정지센터(동장 김차남)는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소통 증진을 위해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한파에 취약한 건강 상태와 난방 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1일 1가구 소통 행정은 동장이 매일 가정을 방문하여 복지 상담, 생활 불편 해소, 건강관리 지원 등 전방위적인 주민 케어를 제공하며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 상·하반기에 걸쳐 981가구를 방문하였고, 총 1,257건의 서비스를 연계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금지면 백산농원, 장애인단체에 포도 기탁

남원시는 금지면 서매리 백산농원(농장주 문윤기)에서 관내 장애인단체 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일 포도 100박스(한 가에 150만원)를 기탁하였다고 밝혔다.

농장주는 불편한 몸으로 농사를 짓던 중 자신과 같이 어려운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장애인단체가 입주해 있는 남원 장애인여울림센터에 직접 농사지은 포도를 기탁하였다.

꿈드래장애인협회 임광호 회장은 “농사일에 바쁘신데도 직접 장애인단체를 방문하여 기탁해주셔서 감사하며, 기탁받은 포도는 각 장애인단체에 고루 분배하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